



감사(監査)하는 자세로

이 찬 복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세월은 손살같이 빠르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내가 감사실에 발령을 받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손가락으로 근무했수를 꼽아볼 정도가 되었다. 그동안 소속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런데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감사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아무리 고마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라는 용어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내가 처음으로 감사라는 것을 겪어본 것은 초짜 공무원 생활을 할 때였다. 하루는 본청에서 근무상황감사를 나왔다. 그 당시에는 출근카드에 근무상황을 기록했는데 직원 한 명이 연가를 내야할 사유에 특별휴가를 낸 것이 적발되었다. 감사받던 그날 공교롭게도 직원복무를 담당 한 직원이 없어서 내가 대신 감사를 받았다. 감사자가 적발한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엉뚱한 감사처분이 내려왔다. 내가 직원 출근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주의처분을 한 것이었다.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이런 감사처분이 내려오자 복무 담당 직원은 싱글거렸지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부기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처분을 감수해야했다.

몇 년 전, 갯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다. 업무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갯벌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였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여도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지정 자체가 무척 어려웠다.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방침이 정해졌다. 비록 갯벌의 규모가 작고 가치가 떨어져도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지정한 뒤, 잘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자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부합하는 곳이 진도지역이었다. 진도지역은 매립·간척이 많이 진행되어 갯벌의 면적이 넓지는 않았지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나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서 갯벌조사와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관리 및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공청회 때에는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도 말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나는 진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자 정말로 기뻐다. 지정으로 인해 내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나 보상은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부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그 뒤의 일이었다.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는 내가 보람을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한 우수한 갯벌에 대해 우선순위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갯벌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을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받은 것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만 지적한 그 감사처분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론이 들었다.

내가 감사실로 발령을 받아 어떤 분은 적성이 안 맞을 것이라면서 걱정을 해주었다. 감사실에 근무한다 하면 다소 거칠어야 하는데 내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감사관은 옛날 봉건시대 관리마냥 상대방을 거칠게 억눌러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는 식의 자백을 받는 재판관이 아니다. 법과 규정에 의한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서 상대방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감사하는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감사를 했지만 그중에서 내가 보람을 느꼈던 것을 꼽으려면 수협 단체급식 및 배합사료 직불제 특별감사다. 수협 단체급식 특별감사는 모 신문에 수협의 급식문제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나는 무척 부담감을 느꼈다. 특히, 수협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누구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수협이 그렇게 엉터리로 학교급식을 하였는지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처분도 문제였지만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였다.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감사가 종반전으로 들어갈 무렵에는 입술이 터져서 밥을 먹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국과장님의 지도와 감사요원 모두 열심히 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실태 조사를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서 수협 급식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배합사료 직불제 특별감사는 일부 어업인들이 허위영수증을 이용해서 배합사료 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해양경찰에서 수사해서 일부 부정행위를 저

지른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도 난감한 문제였다.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청과 감독부서인 본부 사업부서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집행실태와 제도를 바로 잡는 방향에서 감사를 하였다. 한편으로는 실제 집행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감사 처분 이후, 가끔 사업담당 직원으로부터 배합사로 직불제 특별감사 덕분에 허위영수증이 사라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감사에는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기능적 요소도 많다. 그중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사전 예방적 기능과 대안제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 예방적 기능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정화능력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시킨다. 만일 감사기능이 없다면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이 심할 것이다.

이만큼이라도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감사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지 못하고, 자신도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정부분 감사라는 견제기능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보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분명 있지만 지금까지 처리해 온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자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에 구원의 투수로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

또, 조직 문화나 구성원들의 객관적이지 못한 사고로 인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감사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들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감사를 받는다면 피해의식에 젖어 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한마디로 명쾌한 대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받기 원하는 존재이고, 우리나라 감사문화 자체가 강압적이고 처벌위주였다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감사도 변화를 해야 한다. 감사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피 감사자에 대한 감사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피 감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친절한 태도와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 감사자들도 감사자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상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감사문화를 꿈꾸며 감사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본다. 

